

# “경제 살아난다면, 3천배 아니라 3만배도”

## 해운대 원각사서 젊은 CEO들의 기도정진 화제

추운 겨울 회색 좌복 위에 하나 둘 땀방울이 떨어졌다. 한 무더기의 젊은이들이 해가 지고 밤이 될 때까지 끝없이 절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은 부산지역 젊은 불자 CEO들이었다.

경제발전을 발원하는 젊은 불자 CEO들의 3000배 정진이 진행돼 화제다. 부산 해운대 원각사(주지 안도)는 구랍 30일 ‘젊은 불자CEO 3000배 정진’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부터 원각사 극락보전에는 20~30대 젊은 남녀 12명이 자리를 잡았다. 참가자들의 이력은 화려했다. 배강필 드림코리아 대표, 이정화 코렉스 대표, 장정화 제이투페이스 대표, 조은형 부산전람 대표, 강재리 대구전람 대표, 권미영 카페 ‘하라르’ 대표와 각 회사 직원들도 참여했다.

이들의 종교도 다양했다. 개신교신자가 3명, 가톨릭신자가 2명이나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나라 평안과 발

전을 위해 기도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불교 수행은 머리를 맑게 해 지혜를 얻는 최고 수행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원각사에서 진행되는 불무도와 명상 수업을 통해서 인연을 맺었다. 대부분 불무도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명상 등으로 집중력을 키우고 있었다.

### 이웃종교인들도 정진 참여

### 조직화 및 나눔 회향도 계획

### “불교로 망상 없애서 도움”

조은형(35) 대표는 “개신교 신자지만 불무도와 절 그리고 명상을 하며 불교문화와 친숙해졌다. 매주 월요일마다 직원들과 함께 원각사에서 불무도를 하고 있다”며 “3000배는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망상을 없애고 바른 생각을 할



젊은 CEO들이 구랍 30일 원각사에 모여 경제발전과 평화를 기원하는 3000배 정진을 하고 있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내년에는 나라의 경제가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모임을 주창한 이정화(35) 대표는 “개인적으로 3년 전부터 한해를 마무리하며 3000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도반들과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안 좋은 기억은 내려놓고 수행을 통해 얻는 집중력과 지혜로 좋은 결과들을 얻는 새로운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함께 정진한 인연을 바탕으로 향후 모임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 나눔과 봉사를 통한 회향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원각사 총무국장 도전 스님은 “이들의 바람처럼 새해에는 경제가 살아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며 “정진에 의한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해를 맞이하고 남을 위해 베푸는 지혜를 갖추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하성미 기자**

## 조계종부산산림, 해운대서 성도재일 법회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1월 10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 백스코 제2전시관에서 ‘제5회 성도재일 기념대법회 및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를 개최한다.

제1부 성도재일 대법회에서는 회장 수진 스님의 대회사로 시작을 하며, 주지 수불 스님의 격려사,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의 축사와 쟁계사 방장 고산 스님의 법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서병수 부산산장, 김석준 교육감의 축사도 이어진다.

2부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에서는 청소년포교단체 파라미타 회원

들과 군장병, 포교사단 포교사 등이 참여해 팀 대결을 펼친다. 3인 1조로 팀이 구성되며 팀별중 청소년 1명이 포함돼 있다.

퀴즈대회서 우승하는 청소년에게는 부산시교육감이 주어지며 우승팀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국내왕복항공권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또 자원봉사 단체 및 공헌도가 높은 이에게 부산시장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성도재일을 기념하고 조계종도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051)501-7554 **하성미 기자**

## 대구 운불련 정기총회 및 송년법회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회(회장 성승길)는 구랍 16일 대구 천태종 동대사(주지 도산)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 및 송년법회에는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과 성승길 대구 운불련 회장 및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운불련은 동대사 앞마당에 택시를 나열하고 총회 개최식을 열었다.

동대사 주지 도산 스님은 “운불련 택시는 달리는 법당이고, 불자기사들은



거리의 포교사”라며 “좋은 인연들을 맺어 부처님 법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부산 사상구불교聯, 일일찾집 개원

부산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유정)는 구랍 24일 부산 르네상스호텔에서 일일 찾집을 개원했다.

이날 일일찾집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사상구불교연합회는 △청소년 장학사업 △국군장병 위로법회 △해외구호 및 인도적 지원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일일찾집에는 회장 유정 스님을 비롯해 연합회 스님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300여 시민들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또 지역 학생 및 사찰에서 선정한 소년소녀 가장 30여 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다. **하성미 기자**

## 천태종 해영사, 이웃돕기 자비의쌀 전달

천태종 부산 해영사(주지 무연)는 구랍 24일 해운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아동에게 쌀 백미 1500kg을 전달했다.

주지 무연 스님은 “물질적인 것 보다 정신적인 마음이 더 중요한 만큼 마음의 진리를 찾아서 행복을 만들어가도록 하자”며 “추운겨울, 함께 나누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영사는 지난 11월 9일 부산지역 5



번째 천태종 사찰로 봉사 중에도 자비나눔을 펼치고 있다. **하성미 기자**

## 조계종 前종정 성관 스님 추모제

해인사 구랍 27일, 열반 14주기 맞아 대적광전서 봉행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한 대중들이 부도탑전을 참배하고 있다.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해인암 성관 스님의 14주기 추모제가 구랍 27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주지 향적 스님, 도성 스님, 세민 스님 등 5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성관 스님은 1920년 3월 22일에 출생해 14세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7세에 일본으로 유학해 동양철학을 공부하던 중 조사어록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 1946년 해인사에 입산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고 1967년부터 해인사 소임을 살았다.

스님은 ‘공부하다 죽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해인사 주지, 종단 원로의원, 원로회의장을 역임했으며 해인총림 6대방장과 제10대 종정에 추

대됐다. 법랍 56세, 세수 82세로 지난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인과가 역연하니, 오로지 목숨을 걸고 참선수행 잘하리”는 당부를 남기고 입적했다.

문도대표 성범 스님은 “겨울철에 은사스님 추모제에 참석하여 주신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스님들의 인사에 이어 성관 스님의 “열반과 생사가 돌이 아니고,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다”는 육성 법문이 나왔다.

한편, 이날 추모제에 앞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은 해암문도회 회장 성범 스님, 무영 스님 무상 스님 등 대중스님들과 원당암 미소굴을 참배하고, 비림 부도탑전에서 육법 공양을 올렸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차향으로 경찰 문화 선도하자”

부산기장불교연합, 경찰서에 차문화대학 개설

부산기장불교연합은 구랍 29일 부산기장경찰서 대강당에서 ‘기장차문화대학’ (학장 정오·이하 차문화대학)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강식에 앞서 식전행사로 전범사 주지 정여 스님이 차문화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는 ‘다선일여(茶禪一如)’ 붓글씨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정여 스님과 학장 정오 스님(기장불교연합회 회장), 부학장 보혜 스님(부산차인연합회 회장), 정남권 부산기장경찰서장(부산기장경찰서)의 헌다가 진행됐다.

개강식에서는 학장 인사말 △차문화대학 소개 △회장단 소개 △간담회 등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심외무차’를 주제로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 원장의 다도인문학강좌도 진행됐다.

학장 정오 스님은 “훌륭한 차 교육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참된 경찰의 마음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차는 경찰들에게 휴식과 풍족한 삶을 안겨 줄 것이라 생각된다”며 격려했다.

부학장 보혜 스님은 “이 자리를 통해 경찰과 기장군민들이 하나 되고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차문화대학 개강을 축하했다.



대중들이 차문화 흥을 외치며 ‘다선일여’ 글씨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3개월, 중급반 3개월 총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후 고급반 6개월이 이어진다. 차, 시, 인문학 및 생활예절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차문화대학에는 경찰 24명과 기장의 주민들이 참여한다. 과목은 △다구설명 및 차의 정의 △차의 유래, 생활 차례 △선차 △차와 마음 △말차 △커피 △발효차 △동다송 강의 △화차 △차와 도자기 △연차 △차와 문학 등이다.

교수진은 김대철 한국여천차문화원 원장, 정영자 여성문학인 이사장, 김성대 문화평론가, 김봉건 동국대 교수, 이수백 황산요 대표, 박도희 다양차협회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 자리에는 정여 스님, 정오 스님, 보혜 스님 및 교수진들과 경찰 및 지역의 다인 5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하성미 기자**



해수관음보살님

## 금년 정월방생은 2월 21일 봉행하는 해수관음보살님 점안법회에 오세요

보타락가사는 삼사참배와 용왕제, 방생에 적합한 최고의 도량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보타락가사가 접해 있는 바다 전면에는 금실 좋은 부부 두꺼비 바위가 있어 자손 번성을 상징하며, 그 옆으로는 ‘훈장 복(福) 두꺼비 바위’가 선생님처럼 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어 대학 입시생들의 합격발원 터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응전 위로 관세음보살님의 원만상이 매일 정오에 10분간 출현 하십니다.

이러한 모습들에 오시는 분마다 환희심에 가득 차 법열을 안고 돌아갑니다.

양력 2월 21일(음력 정월 14일) 일요일 오전 11시 그동안 원력을 세워 조성하던 해수관음보살님을 청양바위로 웅장하게 조성을 하여 바닷가에 모시고 거룩한 점안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수관음보살님은 고해중생의 간절한 염원에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고 업력을 닦아 불안과 공포가 없는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부처님이며 중생이 겪는 어려움과 장애, 난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을 주시는 자비로운 부처님이십니다.

- 주 소 : 충남 태안군 원북면 청산길 231-28 보타락가사
- 전 화 041-672-1550, 010-2389-0600 (주지스님)

- 문 의 : 회주 법진스님 010-8947-6142

법진스님



보타락가사 앞 바다의 ‘훈장 복(福) 두꺼비 바위’.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는 듯한 형상이다



와불님이 모셔져 있는 적멸보궁